

방언자료를 통한 한자훈 연구

이권홍*

目 次

- I. 머리말
- II. 방언자료와 지방의 한자교육
 - 1. 자료 소개
 - 2. 제주의 한자교육 사정
- III. 『漢字의 濟州名』의 분석
- IV. 훈 연구
 - 1. 방언 훈
 - 2. 이분 훈
 - 3. 개인 훈
- V. 마무리

■ 국문초록

『濟州島 資料集』(1971) 속의 『漢字의 濟州名』은 방언자료 속에 한자의 음과 훈을 포함시킨 유일한 자료이다. 『漢字의 濟州名』은 석주명(石宙明)이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제주에서 채집한 한자의 음과 훈을 기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통하여 한자 훈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漢字의 濟州名』에서 제시된 제주명과 석주명이 제시한 표준명이 다른 경우의 한자에 대해서 방언 훈, 이분 훈, 개인 훈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1995)의 훈이다.

방언자료는 지방 사람의 구술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다양한 음운이

* 제주산업정보대 부교수 / E-mail : lee@jeju.ac.kr

그대로 드러나고 구두 모방 암기 과정에서 와전된 훈이 화석화된 경우도 있다. 『漢字的濟州名』은 방언자료인 만큼 제주방언 어휘로 된 훈이 특징이다. 방언 훈 중에는 중세 어휘가 그대로 제주방언으로 남은 경우와 고어형(古語形)이 확인되지 않은 방언 어휘 훈으로 나눌 수 있다. 방언형이 우세한 어휘인 경우는 그대로 한자의 훈으로 사용되었다. 제주명과 석주명의 표준명이 다른 훈은 『千字文』의 어느 이본의 훈을 제시하느냐의 차이이다. 제주명은 『千字文』 내각문고본(1583)에 의한 것이 많고 석주명의 표준명은 18세기 이후의 『千字文』, 특히 임술본(1862) 이후의 훈으로 새긴 것이 많다.

오독이나 잘못된 이해가 아니라 개인의 언어관에 따라 유사 개념이나 용법의 예로 재해석하여 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를 개인 훈으로 명명하였다.

『千字文』의 훈은 보수적이고 방언적 요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각 지방에서는 제시되는 고정된 훈들 사이에 두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훈은 다양하다. 지방에서는 훈의 개념을 방언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훈은 다양할 수 있다. 제주방언 자료를 통해서 본 한자 훈의 특징은 지역 환경에 따라 재해석된다는 점과 개인 언어에 따라 재해석되었다는 점이다.

주제어 한자 훈, 제주방언, 석주명, 『漢字的濟州名』, 『千字文』

I. 머리말

한자 훈(訓)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의 분야에서 시대별 자료를 통하여 어휘와 음운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자학 분야에서는 서지학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千字文』 연구에서는 이본(異本) 연구를 통하여 훈이 교체되는 경우를 찾는 연구가 중심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한자 훈의 보수성을 강조하는 한편, 고유어에서 고유어, 고유어에서 한자어, 유사 의미로의 교체, 활용형의 변동, 태의 변동, 지시의미 변화로 인한 교체 등 훈의 변천 과정을 밝히고 있다.

훈은 한자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것으로 국어 연구에서는 새김이라고 한다. 한자 학습에 있어서 낱개 한자를 읽을 때, 한자의 음(音) 앞에 풀이하여 놓은 뜻이다.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제시할 수도 있다. 문맥 또는 어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특정 한자를 제시하면 일차적 관습적으로 연합되는 한국어 단어로 석(釋) 중에서 대표되는 것이 훈이다¹⁾. 대표적인 한자 입문서인 『千字文』에서는 초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한자의 상용지식에 해당하는 하나의 훈만을 제시하고 있다. 『千字文』은 ‘1자1훈본’의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언자료를 통해 한자 훈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언은 원래 문어(文語)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록된 자연체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자료에 기록된 한자를 통하여 한자 훈의 변천과 그 시대의 지방의 한자 이해 사정을 살펴본다. 방언자료를 통해 드러난 한자 훈의 개신(改新)과 재해석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기문(1995:1)은 1968년 『千字文』 광주본을 본 뒤 천자문이 지방에 따라 그 새김과 음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며, 선조 8년(1575년) 전라도 광주에서 간행된 이 책의 새김에 대해서 백제 시대의 전통이 들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방언자료를 통한 한자훈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낱개 한자의 훈의 다름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자 훈에 대한 지방정서에 맞는 재해석 등 한자 훈의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자 표기를 통하여 방언 어휘를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1) 박병철(2009), 102면.

지방에서는 보편적으로 『千字文』을 통하여 한자에 입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千字文』의 여러 이본들의 훈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다.

II. 방언자료와 지방의 한자교육

1. 자료 소개

방언은 문어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이 기록되는 예가 없어 방언 연구조차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자의 음과 훈을 표기해 놓은 방언자료는 더욱 구하기가 어렵다.

제주방언 자료 중에 한자를 다룬 자료로는 석주명의 『濟州島 方言集』(1947), 『濟州島 資料集』(1971), 박용후의 『濟州方言研究 資料編』(1960)이 있다. 박용후의 『濟州方言研究 資料編』(1960)은 한자의 훈은 적혀 있지 않고 방언음만 표기되어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²⁾.

『濟州島 資料集』(1971)에는 「漢字의 濟州名」이라는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제주도식 한자의 음과 훈을 적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 책의 저자 석주명(1908-1950)은 평양 출생으로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의 언어 및 동식물, 민속을 연구해 제주학 총서로 발간해 왔다. 『濟州島 資料集』은 여섯 번째 책으로 그간에 오르지 못한 것

2) 예를 들면 ‘즈’로 발음되는 한자를 ‘子, 仔, 字, 孜, 孛, 姉, 姿, 恣, 齋, 資, 慈, 孳, 滋, 自’와 같이 나열하고 있다. 박용후(1960), 205면.

을 모았다고 서문에 적고 있지만, 『濟州島 方言集』(1947)의 내용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漢字的 濟州名』은 『濟州島 方言集』(1947)에 있는 단어들 중에 한자 부분만 뽑아내어 한군데 모은 것이다. 즉 방언 어휘들과 같이 채집된 것으로, 한자의 음과 훈을 별도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 『濟州島 方言集』은 1943년에서 1945년 사이 2년간 제주에서 모은 방언을 1947년에 발행한 것이고, 『漢字的 濟州名』이 포함된 『濟州島 資料集』은 1950년에 집필을 마친 것을 사후 동생에 의해 발행된 것이다. 1971년에 발행되었지만, 1945년 이전에 조사된 제주방언이다.

『漢字的 濟州名』(1971)은 『濟州島 方言集』(1947)의 한자 읽기 항목을 추려낸 자료이기 때문에 두 자료의 제보자(informant)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濟州島 方言集』의 제보자는 애월면과 서귀면 각 1명으로 나이는 기록되지 않았다.

한문자료 중에 방언으로 구술된 것은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1995)이 있다. 『漢字的 濟州名』은 자연체 자료이지만,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은 천자문을 구술하도록 설정한 인위체 한자자료이다. 1983년에서 1985년 사이에 조사된 것으로 평안북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21개 지역 노인들을 찾아가 어릴 때 배운 천자문을 구술하도록 하여 조사자에 의해 기록되었다. 천자문 가락을 넣으면서 또는 글자를 짚어가며 읽은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 제보자 구좌(제주 동부지역), 애월(제주 서부지역), 표선(제주 동남부 지역) 각 1명씩 3명의 구술이 기록돼 있다. 이 중 소재가 파악된 애월면 광령리의 제보자 김문현(1905-1995)의 후손에 따르면, 구술 당시는 80세였고, 한자 습득 과정이나 서당 교육 경력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신식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다고 하였다³⁾. 천자문 습득에 대해서는 1920년 전후 보편적인 지방

의 서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애월의 제보자를 기준으로 보면 다른 제보자도 이와 비슷한 사정일 것으로 추측된다.

2. 제주의 한자교육 사정

『漢字的 濟州名』와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은 조사 시기와 발행 시기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제보자들이 살아온 시대는 동일하다. 조선시대 후기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학령기를 맞아 천자문을 습득하였을 것이다. 제보자는 각각 조사자에 의해 선정된 사람이지만, 한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들 제보자의 한자 습득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주의 한자교육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소재영(1995:103)에 의하면 조선시대 제주문화의 특수성은 3읍의 향교건립과 주자적(朱子的) 유교문화, 당쟁 사회로 말미암아 유배되어 온 사람들의 유배문화, 조선 후기에 들어서 각 지역에 개설된 서숙과 서당 문화로 대변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 서민의 교육은 촌락마다 산재된 서당이 중심이었다. 조선말까지 서당은 대중교육기관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향교나 사학(四學)에 입학하기 위한 예비학교 역할을 하였다⁴⁾. 그러나 교육 대상이 일반 서민 자제들이다 보니 향교나 사학에 입학하기 보다는 한자의 초보적인 지식을 이해시키는 수준이었다. 제주교육연구원(1994)의 조사에 따르면 서당의 입학 동기는 글을 배워서 족보나 문서를 이해하고 지방, 축, 예장 등 가정의례에 필요한 한자를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漢字的 濟州名』와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

3) 손자 김대옥 씨(65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인터뷰 조사(2011년 5월).

4) 김종업(1977).

편』의 제보자의 한자 학습의 목적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보자는 학령기에 한자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학령기 이후 독학으로 습득하는 경우도 있다. 학령기 어린이는 한글을 익히기 전에 한자를 접했기 때문에 한자의 모양을 보고 음과 훈을 통암기하는 방법으로 한자를 습득하였다. 한글을 나중에 익힌 경우도 많았다⁵⁾.

서당의 교육 내용은 강독, 제술, 습자를 중심으로 하고, 千字文, 童蒙先習, 通鑑, 四書三經, 史記, 唐宋文, 唐律 등이 강독 대상이었다. 서당의 교과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천자문을 5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읽히고 類合, 童蒙先習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서당을 1년 정도 다니면 천자문을 뗄 수 있었다. 『漢字的 濟州名』와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보자도 이런 수준이었을 것이다. 향토 한학자 변영탁⁶⁾ 선생은 이 제보자들의 한문 소양에 대하여 천자문 습득 이상의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보통학교의 설립으로 학동수가 줄면서 1945년 전후 대부분의 서당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제주교육연구원(1994)의 조사에서만 보면 1971년 12월에 마지막 서당이 폐설된 것으로 되어 있다⁷⁾.

Ⅲ. 「漢字的 濟州名」의 분석

『濟州島 資料集』(1971)의 「漢字的 濟州名」(pp.115-122)은 183자의

-
- 5) 향토 한학자 변영탁 선생의 증언. 변영탁 선생(1929~)은 정규학교에 입학 전에 서당교육을 2년간 받은 경험이 있다. 국어교사로 퇴직 후, 한문, 서예를 가르치고 있다.
- 6) 주 5)과 동일.
- 7) 제주시 도련동 소재의 도련서당이 1926년에 개설되어 1971년까지 존속되었다. 제주교육연구원(1994), 133면.

한자를 제주방언 훈의 가나다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석주명 본인에 의한 ‘한자의 표준명’을 첨기하고 있다. 대부분 『濟州島 方言集』(1947)의 방언 어휘에 들어 있는 한자다. 『濟州島 方言集』(1947)와 『漢字的 濟州名』(1971)은 조사된 시기와 제보자는 동일하지만 발행 시기에 차이가 나다보니 표기가 다르다. 1947년에 발행된 『濟州島 方言集』에는 초성 복합자음이 나오지만 1971년에 나온 『漢字的 濟州名』에는 초성 복합자음 표기가 사라진다. 이것은 표기의 문제일 뿐, 그 사이 방언 음운이 바뀐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濟州島 方言集』(1947)에는 ‘禪’은 ‘되싸글 선’, ‘冠’은 ‘고 짤 관’, ‘湯’은 ‘싯홀 탕’, 으로 되어 있는데, 『漢字的 濟州名』(1971)에는 각각 ‘되다글 선’, ‘고짤 관’, ‘꼴릴 탕’으로 되어 있다. 그 외 ‘好’는 ‘도 홀 호’에서 ‘종을 호’로 바뀌고, ‘埋’는 ‘무들 매’에서 ‘문을 매’로 바뀌었다. 『濟州島 方言集』(1947)에는 있고 『漢字的 濟州名』(1971)에는 없는 한자도 있다. 단순히 누락된 것인지 지방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러 빼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표 1〉 『漢字的 濟州名』에 누락된 한자

한자	제주 방언명	석주명의 표준명
半	반제 반	반자 반
次	버금 추	버금 차
ノ	비찜	삐찜
鈞	낙굴 조	낙시 조
庶	못 서	거의 서
自	스스리 즈	스스로 자
乂	어질 예	재조 예
百	일백 백	일백 백
侵	지울 채	기울 채
竝	아오를 병	아우를 병
弔	조문 조	도상 도

『漢字的 濟州名』의 대부분의 한자는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한자와 중복된다. 『천자문』에 나오지 않는 한자는 <표2>와 같다. 부수 수준의 글자가 3글자 포함되어 있어 한자 학습의 요령과 방법을 알 수 있다.

〈표 2〉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 나오지 않는 한자

한자	한자의 제주명	석주명의 표준명
一	점엇신갓머리	민갓머리
才	즈방변	재방변
乚	착빚김	책받침
擇	굴릴 택	가릴 택
蠶	누에 줌	누에 잠
姉	누이 즈	누이 자
加	더을 가	가할 가
總	도모지 총	다 총
代	대수 데	역대 대
亥	돈 회	돌 해
腎	두테 신, 자지 신	공활 신
埋	문을 메	문을 메
洙	사숫물 수	물까 수
樵	삭다리 초	나무할 초
媿	씨집 씨	시집 시
死	죽을 스	죽을 사
證	징홀 징	증할 증
膝	무릎 실	무릎 실
森	버릴 슴	나무뻥들어설 삼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 중에 제주 제보자 3명과 『漢字的 濟州名』의 훈이 일치하지 않는 한자는 다음과 같다. 『漢字的 濟州名』의 훈이 특징은 개인 훈으로 읽은 것이 많고, 더

오래된 천자문 이본의 훈이 들어 있다. <IV.훈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3〉 『漢字的 濟州名』과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훈이 다른 한자

한자	한자의 제주명	지방 천자문(제주 제보자)
別	가를 별	다를 별, 다리 별
冠	고깔 관	관 관, 벼슬 관
則	곳 칩	범 칩, 법칙 칩
策	괴 칩	막대 책
河	고림 하	물 하
枇	나무 피	비과 비
常	느레 상	상네 상, 떳떳 상, 상네 상
濟	다홀 제	건널 제, 모들 제
伏	덮을 복	업딜 복
委	맡을 위	ㄱ릴 위, ㄱ라울 위, 지날 위
率	빈 솔	거닐 솔, 다닐 솔, 다리 솔
淸	서느르울 청	식힐 청
嚴	식식홀 엄	엄할 엄, 클 엄, 생각할 엄
藝	심을 예	재주 예
晚	어두울 만	느길 만
階	오를 계	드리 계
阮	완장 완	원가 원, 부릴 환
臨	쟁길 림	지늘 임
殆	즈못 태	위태 태, 태만 태, 해태 태
莊	찰를 장	엄장 장, 자랑 장, 풀성홀 장
藍	푸릴 남	쪽 램
羲	헝기 희	복희 희, 빛날 희, 빛 희
官	귀 감	배슬 관, 배실 관, 뼈관
乃	사 내, 산 내	이에 내, 이어 내, 안 내

『漢字的 濟州名』에서 제주명과 석주명의 새긴 표준명이 다른 한자는 <표4>와 같다. 음운 변화에 따른 차이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4〉 「漢字的 濟州名」에서 표준명과 다른 한자

한자	제주명	석주명의 표준명	한자	제주명	석주명의 표준명
別	가를 별	다를 별	洙	사숫물 수	물까 수
物	것 물	만물 물	樵	삭다리 초	나무할 초
冠	고깔 관	갓 관	淸	서느르울 청	서늘 청
和	고로 화	화할 화	性	성 성	성품 성
都	골 도	도읍 도	疎	소동 소	글 소
馨	꽃타울 향	향기 향	嚴	수르튼 곡	수레 곡
戚	퀸당 척	겨레 척	嚴	식식홀 엄	엄할 엄
官	귀 감	벼슬 관	藝	심을 예	재조 예
籍	글홀 적	호적 적	男	아돌 남	사나이 남
河	고림 하	물 하	晚	어두울 만	늦을 만
常	느레 상	땃땃 상	善	어질 선	착할 선
濟	다홀 제	건널 제	階	오를 계	섬돌 계
伏	덮을 복	엮드릴 복	阮	완장 완	성 완
代	대수 테	역대 대	主	임 주	임금 주
總	도모지 총	다 총	臨	쟁길 림	임할 임
腎	두데 신	자지 신, 콩팥 신	潛	쟁길 잠	잠길 잠
溫	드실 온	따뜻할 온	達	사무살 달	가무칠 달
棠	들 상	아가위 당	正	정월 정	바를 정
弗	말 불	아닐 불	殆	즈못 태	위태할 태
蕢	맥 귀	동구미 귀	莊	찰를 장	씩씩할 장
委	말를 위	버릴 위	勅	칙 칙	칙서 칙
森	머릴 습	나무뻗들어설 삼	唐	탕국 당	나라 당
發	머플 발	필 발	藍	푸릴 남	쪽 남
閏	부루 윤	윤달 윤	多	할 다	많을 다
率	빈 솔	거느릴 솔	羲	헝기 희	복희 희
乃	사 내, 산 내	이에 내			

「漢字的 濟州名」에서 자형이 비슷하여 음을 잘못 읽은 경우는 ‘坵’를 ‘때 후’, ‘棠’를 ‘들 상(裳)’, ‘遂’를 ‘쫓칠 수(遂)’가 있다. ‘常’을 ‘느레 상(翔)’으로 읽은 것은 다른 동음자의 훈을 적용한 경우이다⁸⁾. 석주명의

표준명에도 ‘馨(향기 향)’, ‘蕘(궤)(동구미 궤) 등의 오독이 있다. 『漢字의 濟州名』에서 허용 가능한 방언음으로 읽은 경우는 ‘矜(자랑 극)’, ‘戕(되 운)’, ‘膝(무릎 실)’, ‘礪(돌 깔)’, ‘推(밀 취) 등이 있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서는 제주 지역 제보자 3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3명 다 잘못 읽거나 모르는 글자는 없다. 그 중에 글자를 잘못 읽은 경우는 ‘籠’을 ‘롱(籠)’으로 ‘阿’를 ‘ㄱ름 하(河)’등으로 읽은 경우이다. 방언음으로 읽은 경우는, ‘翳(익힐 십, 익힐 씹, 이칠 습)’, ‘罪(허물 궤)’, ‘鹹(졸 혼, 출 한, 찰 한)’, ‘伐(칠 뺨)’ 등이 있다.

방언자료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한자의 음과 훈에 방언 음운이 적용된 것이다. 지방에서 간행된 한문자료의 이본(異本)들과 방언자료가 다른 점은 구술한 내용을 적다 보니 음운표기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한자 습득 과정에서 초급 훈 습득 방법은 구두연습(Oral Practice)이 유일한 교수법이었다. 훈장의 발음을 모방해서 반복하여 자형(字形)과 훈을 일치시키는 방법이다⁹⁾. 모방암기(mimicry-memorization) 과정에서 와전된 음과 훈이 정착되어 화석화(fossilization)¹⁰⁾된 경우도 많다. 『漢字의 濟州名』에서는 ‘達(사무살 달)’, ‘轂(수르튼 곡)’, ‘賴(시니블 네)’, ‘疎(소동 소)’, ‘鐘(찌급 중)’ 등이 그 예이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서는 ‘達(사무칠 달)’, ‘轂(술위통 곡)’, ‘賴(신입을 리)’, ‘疎(소동 소)’, ‘鐘(쉐분 중)’으로 되어 있다.

8) 날개의 제주방언은 ‘늘개’, ‘늘개기’이다. ‘느레’는 ‘날개’의 방언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느레미’의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인다. ‘느레’는 ‘느레미’, ‘느라미’, ‘느람퀴’라고도 하는데, 날가리 위에 덮는 것으로 날개와 모양이 비슷한 물건이다. 『제주어사전』, 202면. 『漢字의 濟州名』에서 ‘翮’은 ‘느릴 상’, ‘늘 상’으로 ‘날다’는 의미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늘’의 방언형 ‘늘레’, ‘느레’의 이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9) 제주교육연구원(1994)에서는 ‘통달식 교수방법’이라고 하였다.

10) 틀린 언어 형태가 비교적 영구적으로 학습자의 제2언어 능력의 한 부분이 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화석화(fossilization)라고 한다.

IV. 훈 연구

1. 방언 훈

『漢字의 濟州名』은 방언자료인 만큼 제주방언 어휘로 읽은 한자가 두드러진다. 방언으로 훈을 새긴 것 중에는 중세 어휘가 그대로 제주방언으로 남은 경우와 고어형(古語形)이 확인되지 않은 방언 어휘 훈이 있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의 구술에서도 천자문 어느 이본(異本)에도 등장하지 않는 방언 훈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綱’을 다른 지방 제보자는 ‘나부길 요’로 읽는데 제주 제보자는 ‘퍼뜩일 요’, ‘扇’은 부채의 제주방언인 ‘푼채’¹¹⁾, ‘等’은 무리나 따위를 나타내는 제주방언 ‘우던 등’¹²⁾으로, ‘梧’와 ‘桐’은 ‘머귀 오’, ‘머귀 동’¹³⁾으로 읽고 있다. 교재를 매개로 하여 한자를 습득하지만 재생 과정에서 교재 훈은 사라지고 방언 어휘로 개념을 저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漢字의 濟州名』에서 제주방언 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腎 : 두테 신

석주명의 표준명에는 ‘자지 신, 콩팥 신’으로 되어 있는데, ‘두테’는 콩팥을 이르는 제주방언이다¹⁴⁾. 『濟州島 方言集』(1948:48)에는 ‘두테=태두=콩팥’으로 되어 있다. 천자문에는 나오지 않는 한자이기 때문에 『

11) 『제주어사전』, 862면.

12) 표선면 제보자의 구술이다. ‘우던’은 박용후(1960:90)에 따르면 ‘따위, 무리, 겨레불이’의 의미이다.

13) 머귀는 오동나무의 비표준어형이다. 『제주어사전』(765면)에는 머귀남, 머귀남으로 되어 있다.

14) 박용후(1960), 27면.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의 훈은 알 수 없다. 손 회하(1991)의 색인 자료에도 없는 것으로 보아 초학 한자 학습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글자이다.

(2) 蕘 : 맥 귀

사전적 훈음으로는 ‘삼태기 궤’라고 읽는다. ‘맥’ 또는 ‘맥다리’는 가마 니를 이르는 말로 제주 남쪽 지역의 ‘망탱이’, ‘메탱이’에 해당한다¹⁵⁾. 『제주어사전』(2009:361)에는 ‘떡서리’로 되어 있고 제주 전역에서 사용된다. 석주명은 표준명으로는 ‘동구미’를 적고 있는데 이 또한 표준어로 지정된 말은 아니다.

(3) 樵 : 삭다리 초

삭다리는 『제주어사전』(2009: 485)에는 말라죽은 나뭇가지 즉 삭정이의 제주방언으로 나와 있지만, 삭정이의 중세어이다¹⁶⁾. 제주 서부 지역에서는 통째로 말라죽은 나무를 삭달남이라고 한다. 『어방어명 영 살았저』¹⁷⁾에는 ‘낭 밧디 강 삭다리를 흐던가 (나무 밧에 가서 나무를 하던가)’라는 예문이 있는데, ‘나무를 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삭다리는 제주에서 뿐만 아니라 경상도,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방언이다.

(4) 戚 : 켤당 척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서도 제주 제보자 3명 모두 ‘켤당’

15) 『濟州島 方言集』(1947), 128면.

16) 박용후(1960), 237면.

17) 제민일보의 『제주어 기획』타이틀 『아방어명 영 살았저』의 2011년 5월 11일자 예문.

으로 읽은 한자로, 권당(眷黨)의 제주 방언음이다. 권당은 친척을 이르는 말로 제주 전역에서 방언형이 우세한 어휘이다. 일가(一家)를 돌보는 무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공동운명으로 여기는 제주 지역 정서가 반영된 훈이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평안북도 강계, 박천 지방의 제보자가 ‘권당’으로 읽고 있지만, 윤홍섭(1986)의 『千字文』 이본의 훈 색인에서 ‘권당’은 없다. 『千字文』광주본(1575)의 훈은 ‘아슴’이고, 18세기 이후의 이본의 훈은 ‘결에’ 또는 ‘겨레’이다. 원래 친척의 고유어인 ‘아슴’은 소멸해 버리고, ‘겨레’는 민족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는 바람에 한자와 훈이 맞지 않게 된 경우이다.

(5) 都 : 골 도

‘都’는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는 ‘모들 도’와 ‘ㄹ을 도’로 되어 있고 석주명의 표준명은 ‘도읍 도’이다. 『千字文』의 광주본(1575)과 내각문고본(1583)에는 ‘모들 도’로 되어 있고 다른 이본에는 ‘도읍 도’로 되어 있어, 제주에서와 같이 ‘ㄹ을’이나 ‘골’로 읽은 경우는 없다. ‘都’는 ‘성읍(城邑)’이나 군야(郡衙)가 있던 곳을 이르지만, 제주에서는 마을의 의미와 동일하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는 ‘洞’, ‘郡’, ‘州’, ‘邑’을 모두 ‘ㄹ을’로 구술하고 있다.

(6) 丁 : 곶배 정

‘一’을 ‘점잇신갯머리’로 말하는 것처럼 글자 모양을 이르는 말이 훈으로 정착된 경우이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서도 대부분의 지방에서 ‘곶배 정’으로 구술하고 있다. 글자 모양으로 읽는 것이 일반화된 한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千字文』 어느 이본에도 ‘곶

배 정'이나 '고밀개 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다¹⁸⁾. '장덩 덩', 또는 '남덩 덩'으로 되어 있다. 석주명의 표준명은 '장정 정, 고밀개 정'이다.

'곰배'는 '고무래'의 방언형으로 함남, 평북, 강원, 경남, 경북 등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¹⁹⁾. 『濟州島 方言集』(1947:100)에는 '흙망방이'는 '곰배'로 번역되어 있고, '고무래'는 '당그네'²⁰⁾로 번역되어 있다.

(7) 莊 : 찰를 장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서 제주 제보자는 각각 '엄장 장', '자랑 장', '풀성할 장'으로 읽고 있어서 중복되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한자이다. 『千字文』의 광주본(1575)에는 '쑤밀 장', 내각문고(1583) 등에는 '츄밀 장', 임술본(1862) 등에는 '쇠쇠할 장'으로 되어 있어 '찰를 장'의 어원을 찾기가 어렵다. 더구나 '출르다' 또는 '출으다' 형은 현재 사용되는 방언형이 아니고, 방언사전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주방언으로 '찰르다' 또는 '출으다'가 '참되다', '씩씩하다', '굳세다'의 뜻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단지 '출리다'는 '차리다'의 방언형으로 '준비하다'²¹⁾ 또는 '꾸미다'의 뜻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어 '찰르다'는 '출리다'의 이형으로 '꾸미다'의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千字文』의 광주본(1575)의 '쑤밀 장'의 방언 훈이 된다.

18) 광주본과 내각문고본에는 '스 덩'으로 되어 있는데 '스'는 '스나히> 스니히> 소나히> 사내'로 변화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19) 최학근(1990), 『한국방언사전』, 799면.

20) 명석에서 곡식을 말릴 때 곡식을 퍼는 농기구이다. 네이버 사전에는 '丁'자 모양의 농기구로 소개되어 있다.

21) 『제주말 큰사전』, 629면.

(8) 濫: 드실 온

중세어가 제주방언으로 남은 전형적인 훈이다. 『제주어사전』(2009: 286) ‘드시다’는 ‘따뜻하다’로 되어 있다.

(9) 多: 할 다

‘하다’는 ‘많다’의 중세어이다. 18세기 이전의 『千字文』이본에는 ‘할 다’로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만홀 다’로 되어 있다. 현재 방언형으로는 ‘하다’, ‘만하다’ 둘 다 사용된다.

(10) 結: 밧질 결

이 한자도 중세어가 제주방언으로 남은 경우이다. ‘맺다’의 방언형은 ‘밧다’이다. 고어로는 ‘밧다’이다. 『千字文』광주본(1575), 내각문고본(1583)에는 ‘밧 결’로 되어 있고 서릉부분(18세기)에는 ‘밧질 결’로 되어 있다.

(11) 裳: 들 상

『漢字의 濟州名』에서 ‘裳(아가위 당)’을 ‘裳(상)’으로 잘못 읽고 훈을 말한 것이다. ‘들’은 『제주어사전』(2009:288)에는 ‘들메끈’으로 나와 있다. 들메끈은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신을 발에다 동여매는 끈으로 치마와는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

2. 이본 훈

『漢字의 濟州名』에서 제주명과 석주명의 표준명이 다른 경우는 한자의 여러 훈 중에서 어떤 훈으로 읽었느냐에 따른다. 한자는 여러 개의

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훈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한자 습득 입문 과정에서 『千字文』을 유일 교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千字文』의 훈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漢字的 濟州名』과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의 훈을 『千字文』 이본과 견주어 보면, 16세기의 천자문, 특히 내각문고본(1583)의 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²²⁾. 이본의 훈이 서로 다를 경우, 18세기 이후의 천자문 임신본(1752)이나 서릉부분(18C)의 훈으로 구술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광주본(1575) 특유의 훈 ‘士(계츄 스)’, ‘羅(쇠롱 라)’, ‘陽(나미 양)’ 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광주본의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보자들이 내각문고본(1583)의 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각문고본(1583)의 『千字文』을 교재로 삼아 습득한 것은 아니다. 제보자들은 대부분 한글 훈이 달려 있지 않은 필사본, 대개는 훈장이 직접 쓰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교본으로 학습하였다²³⁾. 단지 제주 제보자들은 16세기 어휘로 구술하였을 따름이다.

제주방언 자료의 훈 중에서 근대 훈으로 읽은 것으로는 ‘鐘(쇠북 종)’ 등이 있다. ‘鐘’은 광주본(1575)에는 ‘뿔 종’, 내각문고본(1583)에는 ‘종즈 종’, 서릉부분(18C)에는 ‘북 종’, 임술본(1862)에는 ‘북 종’으로 되어 있다. ‘쇠북 종’은 완산본(1915) 이후에 등장한다.

석주명의 표준명은 서릉부분(18C), 특히 임술본(1862) 이후의 훈이다. 제주명과 석주명의 표준명이 다른 한자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이본 출처는 손희하(1994), 윤홍섭(1986)이다. 각 이본의 서지 정보는 이를 참고하길 바란다.

22) 일반적으로 ‘석봉 천자문’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23) 변영탁 선생의 증언.

(1) 森 : 버릴 습

제주명은 ‘버릴 습’이고 석주명의 표준명은 ‘나무뺨들어설 삼’이다. 『千字文』에 나오지 않는 글자이다. 『類合』칠장사본(1664)에는 찾아보면 ‘별 습’으로 되어 있어 ‘列’의 ‘별 열’과 훈이 같다. 제주방언 ‘버리다(벌리다)’는 ‘별이다’의 뜻으로 ‘펼치다, 물건을 늘어놓다’의 의미이다(『제주어사전』(2009:436)). 이본에는 ‘列’은 ‘버를 열’ 또는 ‘벌릴 열’로 되어 있고, 동일 훈자로는 ‘羅’가 있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서도 ‘羅’는 ‘버를 라’, ‘벌 라’로 읽고 있어 ‘森’과 훈이 같다.

(2) 籍 : 글홀 적, 글얼 적

석주명의 표준명은 ‘호적 적’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본(1804), 임술본(1862)의 ‘호적 적’에 따른 것이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는 ‘글월 적’, ‘적실 적’으로 읽고 있다. ‘글월 적’은 광주본(1575), 내각문고본(1583), 서릉부분(18C)의 훈이다. 제주훈의 ‘글홀’은 ‘글홀다’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글월’의 방언음일 가능성이 크다. 제주방언에는 ‘글월홀다’라는 동사가 별도로 있는데, ‘매매, 대차 등을 성립시키는 문서를 작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²⁴⁾.

『漢字的 濟州名』에서도 ‘文’과 ‘章’도 ‘글월²⁵⁾’, ‘글홀’을 훈으로 삼고 있다. 참고로 ‘글월’과 관련이 있는 한자를 『訓蒙字會』(1527)에서 찾아보면, 文(글월 문), 詩(글월 시), 書(글월 서), 典(글월 전), 經(글월 경), 章(글월 장), 契(글월 계), 簿(글월 부), 簡(글월 간), 字(글월 자) 등이 있다.

24) 『제주어사전』, 111면.

25) ‘글월’은 ‘글밭 > 글밭 > 글왓 > 글월 > 글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용비어천가(1447)의 표기는 ‘글밭’이다.

(3) 正 : 정월 정

광주본(1575)에는 ‘못 정’, 내각문고본(1583)에서 갑술본(1634)까지는 ‘정홀 정’ 임신본(1752)부터 20세기 이본까지는 ‘바를 정’으로 이어진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는 ‘바를 정’, ‘정월 정’으로 읽고 있다.

‘정월 정’은 오늘날의 훈 해석으로 보면 한자의 용례를 훈으로 삼아 읽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정홀 정’에서 유래된 방언음일 가능성도 있다. ‘文’, ‘章’, ‘籍’의 훈에서 ‘글얼’, ‘글월’, ‘글홀’이 넘나들기 때문이다.

(4) 和 : 고로 화

『千字文』의 광주본(1575)에서 갑술 중간본(1754)까지는 ‘고를 화’로 되어 있고 이후 이본에는 석주명의 표준명과 같이 ‘화할 화’로 되어 있다. 서릉부분(18C)에는 『漢字의 濟州名』과 같이 ‘고로 화’로 되어 있다. 광주본에서 동훈자를 찾아보면 ‘調(ㄹ ㄷ ㅅ)’, ‘睦(ㄹ ㅅ ㅅ)’이 있다. ‘고르다’는 중세어로 ‘더하고 덜함이 없이 같다’ 뜻으로 추정된다.

(5) 閏 : 부루 윤

‘부루’는 ‘부르다’의 부사형으로 보인다. ‘和’의 훈이 ‘고르다’에서 ‘고로’로 된 것처럼 ‘부르다’에서 유래된 부사 ‘부루’로 된 것이다. 『千字文』 서릉부분(18C)에는 ‘블를 윤’으로 되어 있고, 갑자본(1804)부터는 ‘윤달 윤’이다. 완산본(1915) 이후 ‘윤달 윤’으로 고정되었다. 『제주말 큰사전』(2007:363)에 따르면 ‘블루다’는 ‘수량적으로 불어나게 하다’의 뜻이다. ‘쓸데없이 덧붙은’ 뜻으로 사용하는 제주방언은 ‘굴루’이다.

(6) 達 : 사무살 달

석주명의 표준명은 ‘가무칠 달’로 되어 있다. 경상도 지방에서 사용하는 말로 ‘가무치다’는 ‘곳곳에 흩어지도록 던지거나 떨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 『類合』칠장사본(1644)에는 ‘스므즐 달’로 되어 있다. 『千字文』의 여러 이본에는 ‘通’의 훈도 ‘스므즐 통’로 적은 것으로 보아 ‘達’과 ‘通’의 훈 ‘스므츄다’는 ‘두루 미치다’, ‘통달하다’의 의미로 적용되었다. 박용후(1960:239)의 ‘옛말에 관계있는 방언’에서는 ‘流通은 흘러 스므즐씨라’라는 훈민정음의 예를 들고, 제주방언 ‘스므치다’는 중세어 ‘스므츄다’와 같다고 되어 있다.

(7) 殆: 즈뫓 태

『千字文』이본에는 ‘殆’가 가지고 있는 여러 훈이 다 등장한다. 광주본(1575), 내각문고본(1583), 칠장사본(1661), 신미본(1691), 송광사본(1730) 등에는 ‘바드라을 틱’, 갑오본(1894)에는 ‘위틱홀 틱’, 임술본(1862)에는 ‘즈뫓’, 서릉부분, 갑자본(1804)에는 ‘거의 틱’로 나온다. 제주명은 임술본(1862)을 따른 것이다. 동훈자로는 ‘頗(즈뫓 파)’가 있다. 제주방언으로 ‘즈뫓’은 ‘생각보다 매우’의 뜻이다²⁶⁾.

(8) 嚴 : 식식홀 엄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는 ‘엄할 엄’, ‘쿨 엄’으로 읽고 있다. 그 유래를 찾아보면 『千字文』광주본(1575)에는 ‘쿨 엄’으로 되어 있고 내각문고본(1583) 이후 여러 이본에는 ‘식식홀 엄’으로 되어 있다. 석주명의 표준명 ‘엄할 엄’은 임술본(1862)에 따르고 있다.

26) 『제주어사전』, 794면.

(9) 藝 : 심을 예

석주명의 표준명은 ‘재조 예’로 되어 있지만, 『濟州島 方言集』(1948)에는 표준명 ‘짐을 예’로 되어 있다. 『漢字的 濟州名』의 정리 과정에서 혼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 『千字文』내각문고본(1583), 칠장사본(1661)에 ‘시들 예’로 되어 있다. 광주본(1575), 서릉부분(18C), 임술본(1862)에는 ‘직조 예’로 되어 있다.

‘藝’는 형성문자로 음을 나타내는 글자 ‘藝’는 나무를 심는 모양이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재능이 필요하다는 뜻이 합하여 ‘재주’를 뜻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심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없어 ‘재주’가 대표 혼이 된 것이다.

(10) 物: 것 물

석주명이 표준명으로 읽은 ‘만물 물’은 서릉부분(18C) 이후에 등장한 혼이다. 광주본(1575)에는 ‘갓 물’, 내각문고본(1583)에서 갑자본(1804)까지는 ‘것 물’로 되어 있다.

(11) 官 : 귀 감

내각문고본(1583), 칠장사본(1661) 등에는 ‘귀의 감’으로 되어 있고, 서릉부분(18C), 임술본(1862) 이후에는 ‘벼슬 관’으로 되어 있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는 ‘배슬 관’, ‘베실 관’, ‘빼 관’으로 읽고 있다.

(12) 河 : 고립 하

광주본(1754)에서 17세기까지 간행된 이본에는 ‘ㄹ름 하’로 되어 있고 서릉부분(18C)부터는 ‘물 하’로 되어 있다.

(13) 委 : 발를 위

석주명의 표준명은 ‘버릴 위’이다. 『千字文』여러 이본에도 ‘브릴 위’로 훈의 교체가 없는 한자이다. 제주명의 ‘발르다’ 또는 ‘바르다’는 ‘버리다(버리다)’의 이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버리다’의 뜻은 ‘없애다’의 의미가 아니라 ‘방치하다’의 의미이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는 ‘ㄱ릴 위’, ‘ㄱ라울 위’, ‘지날 위’로 구술하고 있는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같은 자료에서 동훈자를 찾아보면, ‘翳(ㄱ라울 예)’가 있어 ‘가리다’의 뜻으로 구술한 것으로 보인다.

(14) 發 : 버플 발

석주명의 표준명은 ‘필 발’이다. 서릉부분(18C) 이전에는 ‘베플 발’로 되어 있고 그 이후 이본에는 ‘필 발’로 되어 있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는 ‘필 빨’, ‘베플 빨’로 읽고 있다.

(15) 冠 : 곱갈 관

『千字文』광주본(1575)에서 갑술본(1634) 내각문고본에는 ‘곱갈 관’으로 되어 있고, 『訓蒙字會』(1527)에도 ‘곱갈 관’으로 되어 있다. 박용후(1960:216)에 따르면 ‘冠’은 ‘갓(불근 곱갈)’을 이른다고 한다. 임술본(1862), 갑오본(1894)에는 ‘갓 관’으로 되어 있다.

(16) 性 : 성 성

석주명의 표준명은 ‘성품 성’이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는 각각 ‘성 성’, ‘천성 성’, ‘성 성’으로 읽고 있다. 『類舍』의 칠장사본(1644)을 비롯하여 광주본, 내각문고본 등 여러 『千字文』이

본에 ‘성 성’으로 되어 있고, 병자본(1696)에는 ‘천성 성’, 임신본(1752) 이후에는 ‘성품 성’으로 되어 있다.

(17) 男 : 아들 남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는 ‘스나이 남’, ‘아들 남’, ‘아들 남’으로 되어 있다.

임신본(1752), 갑자본(1804)에는 ‘스나히 남’으로 되어 있고 완산본(1915)부터 20세기에 발간된 이본에는 ‘산히 남’으로 되어 있다.

(18) 馨 : 꽃다울 형

석주명의 표준명은 ‘향기 향’이다. 훈으로는 갑자본(1804)의 ‘향괴 형’에 따른 것이다. 광주본에는 ‘꽃다울 형’, 내각문고본에는 ‘곳다울 향’으로 되어 있다. 박용후(1960:205)에 따르면 ‘곳답다>곳답다>향기롭다’의 의미 변천이 있었다. 『訓蒙字會』(1527)에는 ‘쥬’를 ‘곳다울 향’으로 읽고 있다.

(19) 羲 : 헝기 희

석주명의 표준명은 ‘복희 희’이다. 대부분의 이본에서 ‘복희 희’ 또는 ‘빛날 희’로 되어 있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는 ‘복희 희’, ‘빛날 희’, ‘빛 희’로 되어 있다. 제주명 ‘헝기 희’는 광주본의 표기 그대로이다. 내각문고본(1583)에는 ‘히귀 희’, 서릉부분(18C)에는 ‘희희 희’, 갑자본(1804)에는 ‘발글 희’이다. 완산본(1915)부터 ‘복희 희’로 나온다.

동훈자로는 ‘曠(히귀 광)’, ‘暉(히귀 희)’가 있다. 중세어 ‘희희’, ‘히귀’는 햇빛의 의미에서 밝다는 의미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20) 疏 : 소동 소

광주본(1575)에는 ‘첫글 소’, 내각문고본(1583)에는 ‘소통홀 소’로 되어 있다. 임술본(1862)부터 ‘글 소’라고 나온다. 오세창본과 같은 20C의 이본에도 ‘글 소’로 되어 있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 3명도 ‘소동 소’로 읽고 있는데, ‘소동’이 화석화되어 버린 것이다.

(21) 善 : 어딜 선

광주본 이래 18세기 이본까지 ‘어딜 선’으로 되어 있다. 석주명이 표준명으로 적은 ‘착할 선’은 완산본(1915) 이후에 등장한 근대 훈이다.

3. 개인 훈

방언 훈과 이본 훈은 훈의 근거를 방언사전이나 고대 자료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거나 훈을 밝혀주는 실마리가 사전이나 고대 자료에서 추측할 수 있는 훈이다. 방언자료의 한자 훈에는 아무런 암시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 있다. 특히 구술된 자료이기 때문에 잘못 읽은 것도 있고 잘못 기록된 것도 있고 개인 언어로 읽은 것도 있다.

개인 언어(idiolect)는 개인의 독특한 언어사용을 말한다. 어휘나 관용어의 선택은 물론 개인 특유의 발음까지를 포함한다. 한 글자에 여러 개의 뜻이 있는 한자를 이해함에 있어서 개인에 의해 주변적 의미나 확대된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개인 훈은 방언 어휘와도 일치하지 않고 어느 한문자료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지만, 오독이나 잘못된 이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개인의 언어관에 따라 유사 개념이나 용법의 예로 훈을 말하는 경우이다.

『漢字의 濟州名』의 개인 훈 중에는 오독에 가까운 것도 있고, ‘率(빈 술)’²⁷⁾과 같이 난해한 훈도 있다. 훈의 의미의 연장선에서 의미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만을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1) 別 : 가를 별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는 ‘다를 별’, ‘다를 별’로 읽고 있다. 『제주말 큰사전』(2007:16)에 따르면 제주방언 ‘가르다’, ‘갈리다’는 ‘나누다(分)’의 뜻이고, ‘가리다’는 ‘끝이 갈라지다’의 뜻이다. ‘다르다’의 의미에서 ‘구별하다’, ‘나누다’, ‘갈라지다’로 확대하여 훈을 새긴 경우이다.

(2) 濟 : 다홀 제

‘決濟’와 같은 용법에서 뜻을 확대하여 ‘다하다’, ‘마치다’의 뜻으로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방언으로 ‘다하다’는 ‘있던 것이 없어지다. 끝이 나다. 물자나 심력을 다 들이다. 죄 써 없어지게 하다’의 뜻이다²⁸⁾.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서는 ‘건널 제’, ‘모들 제’로 되어 있다.

(3) 洙 : 사숫물 수

제주명은 중국 산둥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에 흐르는 사수(泗水)의 지류인 수수(洙水)로 새기고 있고, 석주명은 ‘물가 수’로 새기고 있다. 제주명은 고유명사, 표준명은 일반명사로 읽은 경우이다.

27) 향토한학자 변영탁 선생은 ‘率(빈 술)’은 ‘賓率’의 ‘率’로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28) 『제주말 큰사전』, 158면.

(4) 晩 : 어두울 만

석주명의 표준명은 ‘늦을 만’,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 3명도 ‘느즐 만’으로 읽고 있다. ‘저물다’에서 ‘어두워지다’로 확대 해석된 훈이다. 개인 훈의 대표적인 예이다.

(5) 階 : 오를 계

석주명의 표준명은 ‘섬돌 계’, 『濟州島 方言集』(1947)에는 ‘쓸 계’로 되어 있다. 『千字文』광주본에는 ‘버텅 계’, 그 외의 이본에서는 ‘늑닐 계’, ‘드리 계’, ‘섬 계’로 나온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 3명은 ‘드리 계’로 읽고 있다. ‘드리’는 ‘橋’의 제주방언 훈이다. 제주에서는 섬돌을 여읃돌, 이힛돌, 잇돌이라고 한다²⁹⁾.

『漢字的 濟州名』에서 ‘오를 계’로 새겨진 것은 천자문 순서에서 바로 앞 한자인 ‘陞(오를 승)’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제보자가 ‘階’를 명사(섬돌) 훈을 기억하지 못하고 동사(오르다) 중심으로 읽었을 가능성도 있다. ‘糖’을 ‘달다’로 읽는 것과 같은 것이다.

(6) 臨 : 쟁길 림

석주명은 ‘임할 임’으로 읽고 있는데, 『千字文』 18세기 이후의 이본에서 ‘림힐 림’으로 나온다. 그 이전의 이본에는 ‘디닐 림’으로 되어 있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는 ‘지닐 임’, ‘디닐 림’으로 읽고 있다. ‘디닐다’는 ‘임하다’의 중세어로 ‘도달하다’의 뜻이다.

『小學諺解(英祖 諺解)』(1744)에 보면, ‘눅푼 디 오르디 아니흐며 김푼 디 臨히디 아니흐며 (2:10, 높은 곳을 오르지 아니하며 깊은 곳에 가지

29) 『제주어사전』, 718면.

아니하며), ‘모시에 글오디 저허하며 조심하야 김흔 모슬 臨하심 근티 하며 열운 어름을 불음 근티 하라 하니’(4:24, 깊은 못에 임하는 것처럼 조심하며)의 쓰임을 보면, 물가에 도달하다는 의미에서 물에 잠기는 것으로 확대된다. 『漢字的 濟州名』에서는 ‘臨’과 ‘潛’이 같은 훈이다.

(7) 藍 : 푸릴 남

석주명의 표준명과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의 제주 제보자는 ‘쪽 램’으로 읽고 있다. 천자문 이본에서도 ‘쪽 남’으로 되어 있다. ‘푸리다’로 새긴 문헌은 없다. ‘晚(어두울 만)’과 같이 훈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유사개념으로 읽은 개인 훈으로 보인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서 제주 제보자들은 ‘翟’를 ‘푸릴 취’로 읽고 있다.

(8) 勅 : 칙 칙

석주명의 표준명은 ‘칙서 칙’이다. 서릉부분(18C)의 ‘칙서 칙’과 같은 훈이다. ‘性(성 성)’과 같이 음을 훈으로 삼는 것은 가장 용이한 훈 읽기 방법이다.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에서는 ‘경계 칙’, ‘저릴 틱’으로 읽고 있다. ‘저리다’는 중세어 ‘저흐다’와 같은 뜻으로 ‘畏’, ‘恐’, ‘惶’의 훈으로 사용되었다.

V. 마무리

방언연구가 활발한 제주에는 방언 자료는 풍부하지만, 방언자료 속에 한자의 음과 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濟州島 資料集』(1971) 『漢字的 濟州名』이 유일하다. 『漢字的 濟州名』은 석주명이 1943년부터 1945년

까지 방언과 함께 채집한 한자의 음과 훈을 기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통하여 한자 훈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1995)이다. 이 자료는 제주 제보자의 한자 훈 읽기를 포함하고 있고 이들 두 자료의 제보자들은 동시대에 『千字文』을 통하여 한자를 습득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방언자료는 지방 사람의 구술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다양한 음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구두 모방 암기 과정에서 와전된 훈이 그대로 화석화된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漢字의 濟州名』과 석주명의 표준명과 다른 경우의 한자를 방언 훈, 이본 훈, 개인 훈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이 용어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편의상 나누는 것이다.

『漢字의 濟州名』은 방언자료인 만큼 제주방언 어휘로 된 훈이 특징이다. 방언 훈 중에는 중세 어휘가 그대로 제주방언으로 남은 경우와 고어형(古語形)이 확인되지 않은 방언 어휘 훈으로 나눌 수 있다. 방언형이 우세한 어휘인 경우는 그대로 한자의 훈으로 사용되었다. 제주명과 석주명의 표준명이 다른 훈은 『千字文』의 어느 이본의 훈을 제시하느냐의 차이이다. 제주명은 『千字文』내각문고본(1583)에 의한 것이 많고 석주명의 표준명은 18세기에 발행된 『千字文』 특히 임술본(1862) 이후의 훈으로 새긴 것이 많다. 그러나 제주 제보자들이 내각문고본 『千字文』을 교재로 하여 학습한 것은 아니다. 중세 어휘가 그대로 한자 훈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오독이나 잘못된 이해가 아니라 개인의 언어관에 따라 유사 개념이나 용법의 예로 재해석 하여 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를 개인 훈으로 명명하였다. 개인 훈으로 읽은 것은 유사 개

념으로 의미를 확대한 것과 품사를 바꿔 말하는 것 등이 있었다.

『漢字的濟州名』의 훈의 특징은 방언이나 개인 훈으로 읽은 것이 많고 오래된 『千字文』 이본의 훈이 들어 있는 것이다.

『千字文』의 훈은 보수적이고 방언적 요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재로 사용된 교재의 훈과 실제 각 지방에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훈은 다양하다. 각 지방에서는 교재를 사이에 두고 훈의 개념을 방언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훈은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방언 자료를 통해서 본 한자 훈의 특징은 지역 환경에 따라 재해석된 점과 개인 언어에 따라 재해석된다는 점이다.



■ 參考文獻

- 김종업(1977), 『朝鮮朝 濟州島 教育에 관한 論考』, 『제주대 논문집』9.
 단국대동양학연구소(1973), 『千字文』영인본, 동양학총서 3.
 박래봉(1984),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濟州島1』, 『한국교육사학』6, 한국교육사학회.
 박병철(1986), 『천자문 훈의 어휘 변천 연구』, 『국어교육』55, 56호.
 _____ (2008), 『천자문에 나오는 한자의 훈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150.
 _____ (2009), 『한자의 새김관련 용어 확립을 위한 연구』, 『한국어학』45.
 박용후(1960), 『제주방언연구 자료편』, 동원사, 필사본 비매품(단기4293년 발행),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1988) 재발행.
 석주명(1947), 『濟州島 方言集』, 서울신문사출판부, 서귀포문화원(2008) 재발행.
 _____ (1971), 『濟州島 資料集』, 보진재, 서귀포문화원(2008) 재발행.
 소재영(1995), 『한문학과 제주문학』, 『탐라문화』15, 탐라문화연구소.
 손희하(1991), 『새김어휘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신경철(1991), 『자석의 역사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양진건(1992), 『조선조 제주도 교육실태』, 『탐라문화』12, 탐라문화연구소.
 윤홍섭(1986), 『천자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이기문·손희하편(1995), 『千字文 資料集-지방 천자문편』, 박이정.
 이기문(1972), 『석봉 천자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55-57합호, 국어국문학회.
 제주도(1993), 『濟州道誌 第3卷』, 제주도 문화정책과 발행.
 제주도교육연구원(1994), 『제주의 서당교육』, 제주도교육연구원 발행.
 제주특별자치도(2009), 『제주어사전(증보판)』, 제주특별자치도 발행.
 최전승(1994), 『전라방언의 통시적 연구 성과와 그 전망』, 『인문과학』 10,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소.
 최지훈(2001), 『천자문 새김 어휘 연구』, 『한국어 의미학』9호.

Abstract

A Research of Korean translations of Chinese characters through Dialect materials

Lee, Kwon-hong*

There are no Classical Chinese writing documents recorded in the dialect because it is not used as a written language. *Jeju* is the area where dialectology is active. In materials of the *Jeju* dialect, there is a text which recorded the Korean translations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Korean pronunciations of Chinese characters. It is "*Jeju Name of the Chinese Characters*" written by *Seok, Ju-myong*(1908-1950). This text was compiled through the investigation in Jeju from 1943 to 1945.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changes of the native Korean readings of the Chinese characters through this text.

Various phonemes have been kept in the dialect materials because statements were recorded in the same way as they were pronounced. There are also wrong forms fossilized in the process of language acquisition. In their childhood, the *Jeju* people learned the Chinese characters at the *Seodang* (private elementary school of the *Choseon* period) using "*Cheon-ja-moon*" textbook.

The feature of "*Jeju name of the Chinese Character*" was that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e Chinese characters were written in dialect words. They were written in the vocabulary of the 16th century. There are also the Chinese characters that gave read by idiolects.

There are two features of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e Chinese characters in the dialect materials. The first is a re-interpretation by local

* Jeju College of Technology, Professor / E-mail : lee@jeju.ac.kr

emotions, and the second is a personal re-interpretation by idiolects.

Key Words Korean translation of a Chinese characters, *Jeju* dialect, *Choon-ja-moon*, *Seok*, *ju-myeng*.

논문투고일 2011년 10월 13일

논문심사일 2011년 10월 25일

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19일

K C I